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6-566호(2026.11.10 ~ 2027.01.31)

카디안 코리아 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26년 10월말 기준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국내 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9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상세 운용전략을 활용하여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치주에 주로 투자하며 주식시장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주식 편입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자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 리스크관리팀에서 금융공학기법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확립,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제공 및 운용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용업무 및 포트폴리오 위험관리에 대한 지원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3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주식형), 종류형, 개방형, 추가형
-주식 편입비 : 9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A-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 : 2018년 03월 29일
- 클래스 C-E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F : 2018년 03월 2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8년 05월 2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8년 05월 28일
- 클래스 S-P2(연금저축) : 2018년 08월 31일

벤치마크 KOSPI 80%+Call 20%(참조지수)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4영업일
15시 30분 경과후	3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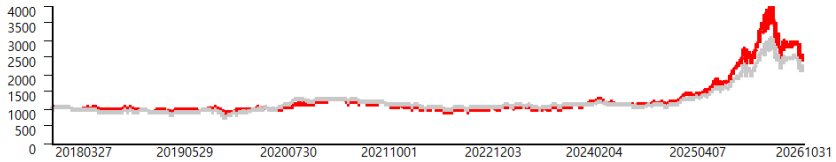
1	**2**	3	4	5	6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5.14%	-10.47%	-15.24%	37.81%	120.44%	164.66%	116.13%	146.90%
클래스 A	-15.25%	-10.79%	-15.85%	35.89%	114.35%	153.69%	100.96%	117.59%
클래스 A-E	-15.23%	-10.72%	-15.70%	36.34%	115.77%	156.24%	104.45%	124.18%
클래스 C	-15.27%	-10.85%	-15.96%	35.53%	113.25%	151.74%	98.31%	112.65%
클래스 C-E	-15.24%	-10.75%	-15.76%	36.16%	115.22%	155.25%	103.10%	121.61%
클래스 C-F	-15.20%	-10.65%	-15.57%	36.75%	117.08%	158.59%	107.68%	130.41%
클래스 C-P(퇴직연금)	-15.26%	-10.82%	-15.88%	35.76%	113.95%	152.98%	99.99%	110.64%
클래스 C-P(퇴직연금)E	-15.23%	-10.73%	-15.72%	36.27%	115.56%	155.87%	103.94%	117.85%
클래스 C-P2(연금저축)	-15.26%	-10.83%	-15.91%	35.70%	113.78%	152.69%	99.61%	113.40%
클래스 S-P2(연금저축)	-	-	-	-	-	-	-	-
벤치마크	-12.97%	-10.14%	-8.94%	34.48%	98.25%	119.60%	80.19%	115.03%

***S-P2(연금저축) 클래스는 10/29 해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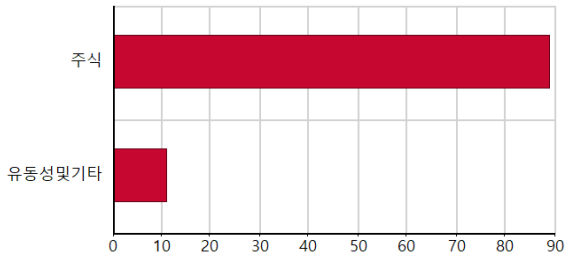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10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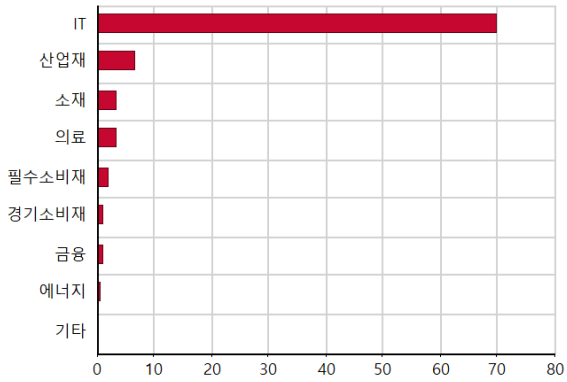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주식	89.1
2	유동성및기타	10.9



<주식 업종별>

순위	업종명	비중(%)
1	IT	70.2
2	산업재	6.6
3	소재	3.6
4	의료	3.3
5	필수소비재	2.3
6	경기소비재	1.2
7	금융	1.2
8	에너지	0.6
10	기타	0.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10월말 기준 주식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종목명	업종명	비중(%)
삼성전자	전기·전자	28.9	LG에너지솔루션	전기·전자	2.2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2.3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2.0
SK스퀘어	금융	3.3	삼아알미늄	금속	1.6
삼성전기	전기·전자	3.1	삼성생명	보험	1.2
삼성SDI	전기·전자	2.5	삼성물산	유통	1.2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

판매회사
내부직원용

카디안 코리아 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2026년 10월말 기준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4825%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1.13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1.7525% (판매 0.97%)
- 클래스 C-E : 총 연 1.2675% (판매 0.485%)
- 클래스 C-F : 총 연 0.8125% (판매 0.03%)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58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18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325% (판매 0.85%)
- 클래스 S-P2(연금저축) : 총 연 0.9925% (판매 0.21%)

(공통사항)

운용 0.75%, 신탁 0.02%, 사무관리 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A-E : 납입금액의 0.5%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0월 KOSPI는 전월 대비 16.19% 하락한 5,730.74pt, KOSDAQ은 15.37% 하락한 724.38pt로 마감했습니다. 월초 이후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매도가 지속됐고, 중순에는 외국인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와 뚜렷한 국내 매수 주체 부재가 겹치며 지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존 주도주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면서 KOSPI와 KOSDAQ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3분기 성장률과 설비투자도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조정은 경기 및 기업이익의 급격한 훼손보다는 높은 할인율과 수급 공백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 성격이 강했다고 판단합니다. 월 후반에는 미국 장기금리가 5% 부근까지 하락하고 일부 반도체 대형주에서 외국인 매수가 재개되며 지수가 반등하기도 했으나, 월말 재차 외국인 매도가 확대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AI 및 기존 고베타 주도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된 반면 금융·보험 등 일부 방어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30원으로 전월 대비 1.58% 하락했고, WTI유가는 전월대비 15.15% 상승한 104.1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1조원, 4.5조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2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11월 국내 증시는 월초 높은 변동성 이후 중순부터 점진적인 회복을 시도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예상합니다. 10월 말 FOMC와 BOJ를 통과한 가운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와 이후 고용·물가 지표가 예정되어 있어 월초에는 미국 장기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0월 급락으로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기업이익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어 추가적인 펀더멘털 훼손이 없다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가 확인된 만큼 미국 10년물 금리가 5% 아래에서 안정되고 외국인의 반도체 순매수가 재개될 경우 KOSPI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시작된 이후 반도체 소부장, ESS·전력기기, 바이오·헬스케어 등으로 수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 물가 재상승이나 재정적자 우려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5.3%를 재차 상회하고 Brent 유가가 10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성장주와 KOSDAQ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재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후반에는 11월 26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으며, 25bp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더라도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되고 추가 긴축 속도가 완만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은 초반 KOSPI 대형주와 실적주 중심의 방어적 대응 이후, 금리 안정과 외국인 수급 개선이 확인될 경우 중순 이후 성장주와 KOSDAQ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지수는 탐욕보다는 비관이 팽배해 있어 지금의 주가 조정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 기준으로는 미국 10년물 금리 5% 하회, Brent 유가 100달러 하회를 본격적인 Risk-on 신호로 판단하며, 미국 10년물 금리 5.3% 상회, Brent 유가 105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종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이어진 반도체 수출 증가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를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장 강할 것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산업정책 변화 가능성과 미국 전력 부족 문제를 감안할 때 ESS·전력기기·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의 승패 자체보다 선거 이후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구조, 재정지출·세액공제·에너지·AI 인프라 관련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증설로 미국의 전력 공급 부족 문제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송배전망, 변압기, 전력기기, ESS 및 일부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중장기적인 투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월초 관련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미국 매출 비중과 수주잔고가 높은 전력기기 및 ESS 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 미국 물가가 완만하게 둔화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안정될 경우 성장주의 상대강도가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화장품 등 장기 성장성이 높은 업종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월말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및 종목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11월말에 예정되어 있는 금통위에서는 25bps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기준금리는 3.0%에서 3.25%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금리가 상승 추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가 조정 시 은행 및 보험에 대한 비중을 재차 상향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포트폴리오 리스크 분석 (2026-10-30 기준)

리스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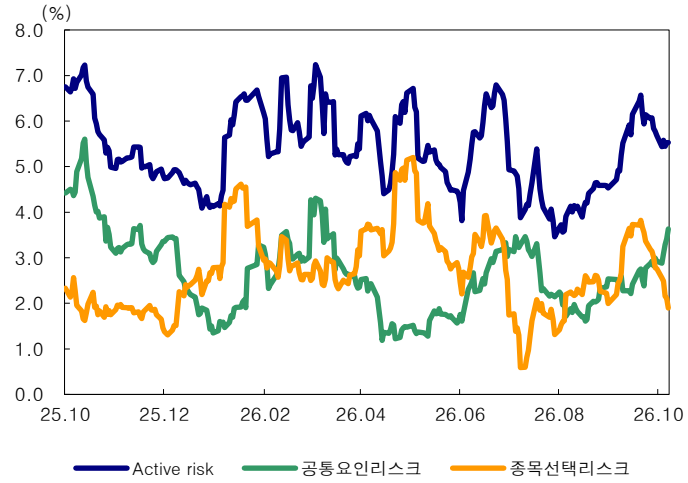
	2026-10-30	2026-09-30
Active Risk [1]	5.92%	4.91%
공통요인 리스크 기여도 [2]	4.27%	2.40%
- 스타일 리스크 기여도	5.05%	0.54%
- 섹터 리스크 기여도	-0.68%	1.86%
종목선택 리스크 기여도 [3]	1.65%	2.50%
베타	0.97	1.04

1. Active Risk는 참조지수 대비 펀드의 초과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으로 공통요인 리스크와 종목선택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Active Risk 수치가 높을수록 펀드가 참조지수에 비해 적극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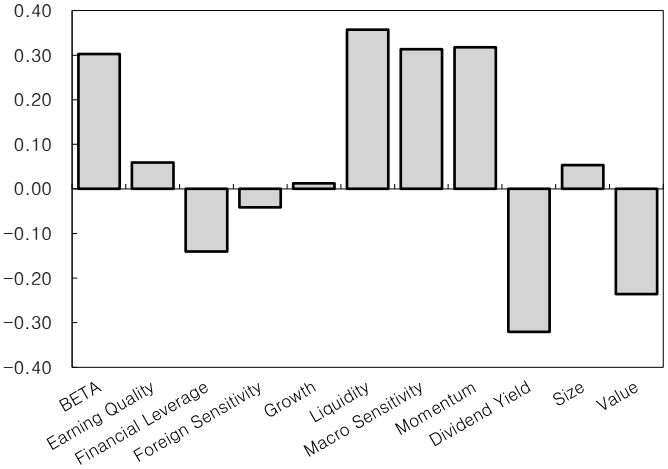
2. 공통요인 리스크는 스타일 및 업종 리스크와 공통요인간의 상관관계로서, 주식시장 전반에 미치는 리스크를 의미 합니다.

3. 종목선택 리스크는 경영성과, 노사분규 등과 같은 개별기업의 특수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로서 공통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기업 고유의 리스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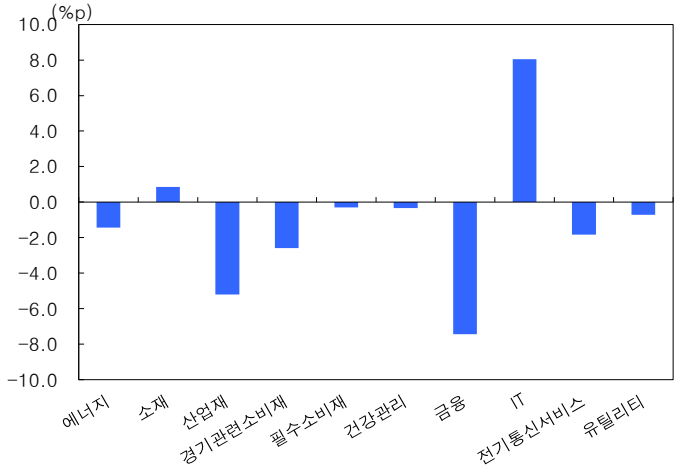
<Active Ri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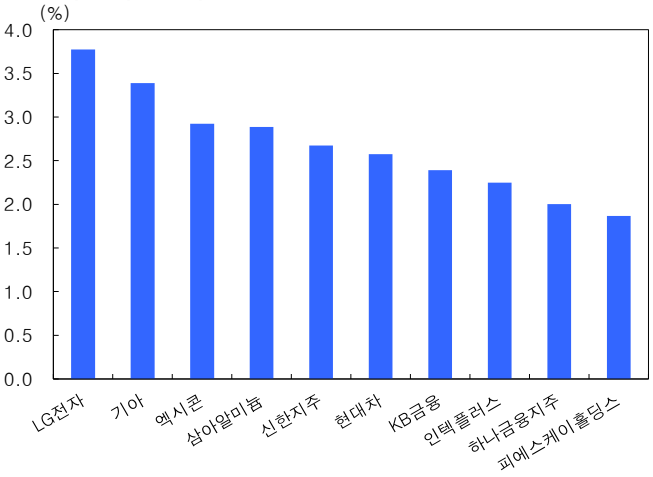
<참조지수 대비 스타일 비중차>



<참조지수 대비 섹터별 비중차>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



분석 결과

*종목별 리스크 기여도는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10월말 현재, 코리아스타증권[주식혼합] 펀드의 Active Risk는 5.92%로 전월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종목수는 전월대비 7개 종목 감소하여, 71개 종목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성향은 변동이 없었으나, 참조지수 대비 '산업재', '금융' 등의 비중 차이는 증가하였고, 'IT', '건강관리' 등의 비중 차이는 감소하였습니다. 종목 기준으로 본다면, 9월말 기준으로는 '현대차'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상승하였고 '삼아알미늄' 등의 리스크 기여도는 하락하였습니다.

▶ 종목 선택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월대비 감소하였고, 종목집중 위험은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동펀드는 'Dividend Yield'보다는 'Liquidity'가 높은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KARDIAN
카 디 안 자 산 운 용